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소개자료

681회 정대협 수요집회 및 592회 민가협 목요집회 간략소개

이은영 | KIN자원활동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기 ‘수요집회’ 소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정기시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동안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의 장으로, 이념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정기 수요시위는 일본정부에 다음의 6개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4.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워라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6. 이러한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등으로 작성되어 당시 공동대표시던 박순금, 이효재, 윤정옥 3인의 이름으로 서명되었다.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던 때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계속 진행되어 36개 회원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하여 매회 3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수요집회는 2005년 10월 26일 현재 680차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기 ‘목요집회’ 소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매주 목요일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목요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와 함께 국내 최장기 집회 중 하나로 1993년에 첫 집회를 연 뒤 올해로 12년째다.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 어머니들이 매주 목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에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두른 채 단 1주도 빠뜨리지 않고 집회를 열어왔다.

그동안 민가협 회원들은 집회를 통해 양심수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정부에 촉구해왔으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제기해 이들 중 일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 간첩조작사건 진상규명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검거 촉구, 경찰폭력과 감옥 내 인권유린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 집회는 대표적인 인권집회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집회에 참가한 연인원은 2만 여명으로 이 가운데는 각국의 인권단체 회원뿐 아니라 아버지의 석방을 기다리는 유치원생부터 생전에 아들의 석방을 보는 것이 소원인 구순 노모까지 포함돼 있다. 목요집회는 10월 27일 현재 591차를 맞이하고 있다.